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19년 11월)

<b>일시</b>	2019. 11. 21. 목. 오후 5시	<b>장소</b>	대회의실
<b>참석자</b>	<b>위원회</b>	구제길, 김요수, 류한호, 박미자, 이철우, 조숙경, 최선희, 최영태(8명)	
	<b>회사</b>	송일준 사장, 박형도 경영기획국장, 곽판주 편성제작국장, 한신구 보도국장, 안승현 기획심의부장(5명)	

### ■ 회의 내용

- 안승현 기획심의부장 : -총원 열세 분 중 여덟 분이 참석하셨다. 한 분은 서면으로 위임하셨다. 과반수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다.
- 최영태 위원장 :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린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 반갑다. 사장님의 인사 말씀 듣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다.
- 송일준 사장 : -광주MBC는 이 정도 되면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인데 좋은 성과와 실적을 올리고 있다. 시청자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지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오기 전에 회의자료 읽어봤습니다만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적혀있는 내용 외에도 좋은 내용 기탄없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다.
- 최영태 위원장 : -본 회의를 진행하겠다. 우선 주요업무보고를 각 부서로부터 들도록 하겠다.
- 곽판주 편성제작국장 : -<핑크피쉬>의 수상이 계속되고 있다. 제32회 전국MBC-TV계열 사작품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다음 주 목요일 상을 받으러 올라간다. 그 전에 11월 15일에는 <핑크피쉬>와 <지역독립선언>이 똑같이 지역프로그램대상 동상을 수상했다. <핑크피쉬>의 기획의도와 완성도가 인정받은 거 같다. UHD <핑크피쉬>가 10부작 방송종료를 했고, 스페셜 편성을 매주 금요일 아침 8시 30분에 7주 연속 편성할 예정이다. 그리고 전국 편성으로는 케이블 채널인 MBC에브리원에서 12월 1일부터 매주 일요일 아침 9시에 방송을 한다. 무등산 유네스코 지질공원 1주년 기념 지질공원 다큐를 10월 26일 방송을 했고, 무등산권지오마라톤대회를 27일 8시부터 10시 40분까지 방송해서 좋은 반응을 얻어냈다. <농업이 미래다> 16부작 방송 중이고, <포구만리> 10부작이 방송에 들어갔다. 그리고 16개 지역의 공동자치권 특강도 계속 방송하고 있다. 90주년 학생의 날 기념해서 청년·학생 문화 예술축전을 11월 2일 했고, 학생의 날 기념식은 별도로 녹화 해서 중계를 했다. 그리고 지역축제에 여러 가지 기여를 했다. 굿모닝양림, 화순국화향연, 벌교꼬막축제, 담양가로수길음악회 등을 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제작지원을 받은 <아시안 탐밴드?는 10월 31일 KCA 해외 한국어방송대회에 참가해서 홍보를 했고, 라파해외 교류포럼에 참여를 했다. 그리고 제1차 워크숍은 1월 9일부터 예정이 되어있다. 나주정미소 난장곡간은 프리오픈을 다음 주 화요일인 11월 26일 하고 개막공연은 12월 6일로 예정되어있다. 그리고 MC는 신현희와 또 다른 MC를 섭외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난장>에서 MC를 등장시킬 예정이다. 라디오 <살롱음악회>는

12월 20일 예정이 되어있다. 광주시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도 중계차 녹화를 할 예정이다. 편성제작에서 추진하고 있는 캠페인 청출어람을 올해까지 종료하고 내년 부터 매우 정의로운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광주 MBC가 공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인데, 지금 공정이 시대의 화두지 않나. <공정, 건강공동체의 출발점입니다>라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 한신구 보도국장 : -11월의 주요보도 내용으로는 화물차 매연저감장치 조작 관련해서 보도를 서너 차례 했었다. 이와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실태조사에 들어가서 앞으로 결과가 나올 경우에, 여러 업체들로 파장이 상당히 확산될 것 같다. 광주의 가장 최대 현안사업 중 하나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광주시청의 담당 국장, 정종제 부시장 등 여러 가지 연루되어 상당히 말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 계속 보도를 하고 있다. 오늘 오전에 중앙공원 1지구인 한양건설에 압수수색이 들어갔다. 그로 인해 검찰의 수사 방향은 마지막 후반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다. 그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 내년이 총선의 해다. 그래서 출판기념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대안신당도 지난주에 창당발기인대회를 가졌고 손금주 무소속 의원도 민주당에 입당을 했다. 앞으로 제3 지대 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슈화 될 것 같아서 집중하도록 하겠다. 알츠하이머병이라는 전두환 씨가 골프를 치는 뽕뽕한 모습이 보여서 광주의 비난이 많았는데 이 부분에서도 계속 후속 보도하도록 하겠다. 한빛원전이 열출력 사고가 있어서 상당히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컸다. 당시에 그것을 은폐하려고 했고 조작한 정황도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보도도 저희가 다른 경쟁사에 비해 더 열심히 하고 있다. 앞으로도 좀 더 감시 눈초리 더 세우도록 하겠다. 12월은 연말이다. 내년 총선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준비 중이고 세 차례 정도 준비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렸던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계속 감시를 하겠다. 몇 차례 지적해주셨던 아침 뉴스 부분에서 신입 앵커를 11월에 공개모집을 해서 확정을 했다. 12월 9일 월요일부터 <뉴스투데이>부터 투입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 가고 있다. 내년 특집 기획으로는 5·18 40주년이 되는 해여서 5·18 관련 콘텐츠 두 개, 시 특집 관련해서 하나, 총선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
- 안승현 기획심의부장 : -경영국장 휴가로 제가 기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연말에 공연이 준비되어있다. 미술 공연 퍼포먼스 <페인터즈>가 12월 27일부터 28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예정되어있고, 김건모 콘서트가 12월 31일 말일에 광주여대 체육관에서 준비되어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0 나눔 캠페인 성금모금을 시작한다. 11월 20일부터 시작했고 내년 1월 31일까지 할 예정이다. 작년 같은 경우 3억 8천만 원의 성금이 모금되었는데 예년에 4억 9천에 비해 많이 줄어든 상태다. 올해는 내년 수준의 이상으로 회복되도록 많이 노력하겠다.
- 최영태 위원장 : -지금까지 각 부서별로 주요 활동, 실시했던 내용을 말씀해주셨는데 혹시 들으신 내용 중에 궁금한 거나 더 필요한 질문이 있나.
- 박미자 위원 :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모금은 예전 방식 그대로 계획하나.
- 안승현 기획심의부장 : 그렇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와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대행해서 하는 것이기에 기존방식과 동일하다.
- 박미자 위원 : 따로 성금 모금하는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이 있나.

- 곽판주 편성제작국장 : -없다.
- 송일준 사장 : -우리가 모금에 기여하는 것이 나눔장터 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연말에 하는 성금모금이 있다. 사실 예전처럼 대한민국이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 주머니를 통해 성금모금을 많이 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사회가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되어야 하지 않나. 제도적으로 복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연말에 불우이웃을 돕는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
- 최영태 위원장 : -다른 더 궁금한 거 있나. 없으시면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
- 구제길 위원 : -뉴스로도 라디오로도 거의 MBC를 듣고 있는데,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이계상 기자, 이재원 기자, 송정근 기자가 3일 방송한 내용이다. 유니아대우전자 광주공장 일부 생산라인의 태국 이전 보도가 있었다. 회사측이 내년 3월쯤 세탁기 생산라인 두 곳을 태국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인데 노조는 단체협약을 뒤집은 것으로 반발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동안 하남산단에서 말로만 떠돌던 걸 광주MBC 보도로 확인할 수 있었다. 협력업체들은 그동안 이전이 확실시되었는데도 갑을관계 때문에 모기업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가뜰이나 인건비 등 생산원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납품처가 외국으로 옮겨가면 중소기업은 그야말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 광주 전체지역으로 봐도 일자리 감소와 실업 등 미치는 파급효과는 엄청나게 크다고 볼 수가 있다. 지난 2016년에도 삼성전자 일부 라인이 외국으로 옮겨갔을 때도 광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경제효과는 그 여파가 상당히 심했었다. 회사측 주장대로라면 노조와 사전 협의를 진행한다고 하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취재를 심층적으로 해주기를 바란다. 특히 사측이 주장하는 프리미엄급 생산라인으로 재편한다는 것은 현재 가전업계 구조상 생산라인을 옮기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말이 많다. 회사측의 설명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노조와 협력업체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말에 불과한 것인지 보다 더 적극적인 후속취재를 기대하겠다. 그리고 AI산업 등 신규 일 자리를 만드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기존 산업, 예를 들어 백색가전이라든지 광산업이라든지 일 자리를 창출하는 글로벌모터스 등 경제,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고 그 일 자리를 지키려는 광주시의 노력도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지역경제와 관련한 보다 많은 심층적인 보도를 기대하겠다.
- 박미자 위원 : -<뉴스투데이> 같은 경우 매일 아침마다 만난다. 진행하는 김두식 아나운서가 굉장히 전달력도 좋고 안정적으로 진행해주셔서 뉴스의 몰입도가 좋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것이 뉴스란 게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어떤 이슈적인 부분이나 사실을 시청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목적인지, 11월 한 달 동안 뉴스를 보면 보통 하루에 25분 동안 20개에서 21개, 어떤 날은 16개 꼭지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된다. 25분 동안 21개면 1개당 보통 1분도 안 되는 내용을 전달함에 있어 뉴스는 그만큼 짧고 간결하고 정확하게 팩트만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가끔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는 깊이 있게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뉴스란 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겠지만 너무 많은 분야의 내용을 한꺼번에 많이 담으려고 하다 보니 깊이가 너무 알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취재하는 기자들의 방향성이나 또는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구성도 잡히겠지만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여기를 틀어도 그 얘기, 저기를 틀어도 그 얘기 등으로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중복되는 내용

도 많다. 오히려 MBC 뉴스는 좀 사각지대에 있어서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 내용으로 시민들이 알면 도움이 되는 정보, 꼭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뉴스가 되었으면 좋겠다.

- 최영태 위원장 : -이요숙 위원은 안 나오셨는데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은 10월 26일날 8시 뉴스 시간의 방송사고에 대한 지적과 지역 뉴스 시간에는 지역의 이슈 이런 부분을 더 깊이 살펴주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조숙경 위원 : -11월 16일자 <뉴스데스크>를 보게 되었는데, 그날이 휴일이라서 늦가을 시민들이 사진 찍는 풍경을 한참 보여주다가 갑자기 전국 사립대 내년 등록금 인상 추진 얘기가 나온다. 갑자기 왜 휴일 뉴스를 하다가 전국 사립대 등록금 이야기가 나오지, 라고 생각했다. 그러고 보니까 또 교육청 입시설명회를 다음에 하고, 그 다음 갑자기 화물차사고 얘기를 하고, 또 다음엔 학교 스프링쿨러 설치에 대해 얘기를 했다. 뉴스가 연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럼 광주에 사립대가 많나? 사립대 비율이 높은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뉴스에 이 꼭지가 왜 두 번째로 중요하게 나왔나 싶었다. 전체적으로 뉴스에 대해 관심을 더 갖게 되는 계기가 됐다.
- 최영태 위원장 : -MBC에서 무등산과 관련해서 11월 26일은 다큐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를 방영했고, 물론 무등산만 한 것은 아니고 금년 2월에는 지오투어리즘에 대해서 특집다큐멘터리를 했었다. 또 27일은 무등산권지오마라톤대회도 있었다. 이렇게 지역방송으로서 무등산을 소재로 프로그램을 계속 제작 방영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다. 이왕 무등산권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니 앞으로 무등산 관련해서 방공포부대, 사실 방공포부대는 국방부가 수년 전에 옮긴다고 약속을 했었고 금방 이행할 것처럼 했는데 군공항 이전 문제와 패키지로 연결시키면서 어느 때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방송에서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요즘 광주시민들이 크게 이슈화 하는 게 아파트가 너무 고층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웬만하면 30층 이상 이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이슈화 해줬으면 좋겠다. 무등산 관련해서도 무등산 조망권 문제, 바람길을 막아서 도시 온도가 올라가는 문제 등 무등산 연장선상에서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보도해주셨으면 좋겠다.
- 류한호 위원 : -뉴스가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한 기능은 사회에 존재하는 위험을 미리 보고 경고를 하는 것이라고 본다. 뉴스를 통해서 새로운 지역과 사회를 건설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보다는 위험을 완화 내지는 예방하는 효과가 1차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빛원전의 열출력 사고를 은폐하는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광주MBC가 다른 신문이나 방송보다 더 집중력을 갖고 보도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한빛원전은 지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 중에서 가장 크고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감시체제는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할 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원전이다 보니 언론매체들의 접근을 막고 정보를 은폐하는 이런 측면이 있어서 심층보도 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럼에도 많은 노력을 해주고 있다. 거기에 추가해서 심층보도가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관심 갖고 보도함으로써 지역민들이 관심을 갖고 다가올 수 있는 위험문제에 대해 올바르게 생각하게 해주고 여론화 공론 형성에 도움 될 수 있겠다고 본다. 이 부분 잘하고 있다고 보고 더욱 잘하길 바란다.  
-선거가 넉 달 반쯤 남았다. 아마 12월에 가서 여론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

고 보도 시리즈를 하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선거보도에서 한편으로는 재미, 한편으로 유익이 중요하다. 그런데 유익한 보도가 좋다고 해도 재미가 있어야 좋은 거다. 유익하면서도 재미있는 선거보도를 위해 노력해주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역시 정책선거다. 정책은 후보자들에 대한 정책의제 제시와 후보자들의 의제에 대한 답변 쪽으로 정책선거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본다. 후보자를 따라가기 하는 보도가 아니라 후보자를 앞에서 선도하고 지역민의 요구를 후보자들에게 확실히 제시하고 답을 얻어내는 쪽으로 집중적으로 노력해서 지역사회에서 방송과 시민 사이에서 시민이 적극적으로 의제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미래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쪽으로 보도를 집중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 최영태 위원장: -이번 11월 3일은 광주학생독립운동 90주년 기념일이었다. 그래서 MBC에서도 중계를 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전국적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시사본색>이 행사 시작 3시간 전에 그 행사를 주제로 삼은 것은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었다고 생각이 든다. 그리고 출연자도 김성 이사장, 노성태 역사교사여서 좋았다. 다만 아쉬운 것은 그런 프로그램에 학생이 한 명 정도 참여했으면 참 좋았겠다. 그날 기념식 행사에도 전국에서 학생들이 대거 참여했고 프로그램도 학생들이 거의 전부 참여해서 학생운동을 어떻게 계승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환경적 차원에서도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했다. 이번에 <시사본색>에서 과거에 대한 회상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 추억이었던 학생이 학생운동정신을 계승해서 오늘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등의 이런 것들이 함께 다뤄졌으면 좋겠다. 이번 일요일날 청년정치에 대한 주제로 했는데 제가 보니까 당이 나왔을 때 정의당, 민주당, 대변인이 나왔는데 왜 자유한국당은 안 나왔을까 생각했다. 자유한국당이 안 하겠다고 했나, 자유한국당을 섭외를 안 했나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녹화를 한 것을 처음부터 봐보니 섭외를 했는데 안 된 것이었다. 중간에 듣는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막으로 처리를 하는 등 좀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26:20

○ 최선희 부위원장 : -<김낙곤의 시사본색>이 광주MBC의 대표적 토론프로그램으로 매주 일요일 아침을 기다렸다가 보곤 한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청년정치를 말하다’가 바로 직전인 11월 17일 방영했다.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굉장히 상큼한 분위기들인 20대, 30대, 40대가 출연을 하게 되었고 시작할 때 자유한국당을 섭외했는데 고사했다고 하는 내용 전달해서 잘 들었다. 지금 정가의 움직임들이 이철희 의원이 초선이면서 내년엔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고 이어서 표창원 의원도 같은 여당인데 정치 현실에 대한 거울처럼 현실성을 잘 비판한다. 굉장히 바른 잣대와 바른 눈을 가지고 양심적인 정치가들이 많구나 하며 흐뭇하게 들었다.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김세연 의원이 3선이나 했지만 “좀비들이다. 다 물러가야 한다.” 이렇게까지 파격적으로 말하기가 쉽지 않은 자아비판적 이런 판단의 흐름을 잘 노출해주고 있다. 광주MBC가 총선까지 약 4, 5개월 남아있는데 어떻게 이런 토론프로그램 등을 잘 엮어가 줄 것인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상적인 방법으로 가지 말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주당이 사실은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여당 입장에 섰을 때 총선의원들이 많이 분포되어있는데 청년정치를 말해도 혹시 중앙대변인이 못 오면 이쪽의 현역의원들이랄지 이렇게 세대물갈이에 핀을 맞춰서 광주

MBC가 궤도 수정하면서 계몽하는데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낯익지 않은 뉴페이스들이 와서 굉장히 상큼했는데 잘 들어서 새로운 개념을 많이 넣어주기도 하지만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 청년들의 세대교체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숙제를 줘서 스타들의 전쟁처럼 중앙당에서 현역인데 앞으로의 공천이랄지 이런 흐름을 어떻게 갖고 가서 정치가 궤도수정이 될 것인가에 관한 유도적인 질문에 대한 요청을 주제로 잡아서 <김낙곤의 시사본색>에서 심도 있게 끌어갔으면 좋겠다.

-<라디오칼럼>을 즐겨 듣고 있는 중에 10월 31일날 김요수 위원님의 칼럼을 들었다. 항상 구성진 보이스턴으로 다이나믹하고 드라마틱하게 칼럼을 해주셔서 상당히 즐겁고 연극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참 재미있는 것은 10월 31일 방송이었다. 전국적으로 어디든 틀면 10월이 되었을 때 <10월의 어느 멋진 날>과 함께 이용의 <잊혀진 계절>을 다 구구절절 틀고, 그날 어디를 가지 않으면 안 될 거 같은 이런 트렌드가 가요에 있다. 뽀빠로데이도 그런 거다. 영업적으로 그걸 이용해서 그런 날을 만든다. 김요수 위원께서 칼럼을 10월의 마지막 날 방송을 하시면서 우리가 마음먹었던 연초의 시작, 그리고 현주소는 어떠한가 등 너무 낭만적이지 않을 듯한 내용이지만 구성진 목소리로 자신이나 우리의 현주소를 짚어 보는 10월의 마지막 칼럼이어서 상당히 의미심장했다. 각양각색의 출연진들이 칼럼을 매일 이어가고 있는데 직구도 좋지만 변화구로 공격하는 프로그램이 각양각색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다.

- 김요수 위원 : -칭찬 감사하다. 저는 11월 13일 <오매 전라도> 프로그램을 봤다. 거기에 사진 한 장으로 역사를 설명해주는 안세홍 작가가 나와서 여러 가지 사진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래도록 그게 남았다. 일본에 의해서 자행된, 몸에 새겨진 그런 아픔이 대한민국의 아픔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동남아의 수많은 피해 국가의 아픔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주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런 지울 수 없는 흔적들을 13분간 할애한 것은 충분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좀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전라도에 많이 있는 고택에 대한 역사를 풀어주는 남도종가의 보물투어를 했는데 단순한 구경이나 체험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 가지 교훈을 심어준 것이 좋았다. 제안을 한 가지 하고 싶다. 하루에도 우리에게 수많은 일이 생긴다. 우리의 관심을 끌고 방송에 적용할 소재를 찾는다는 것이 정말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다. 방송하시는 분들이 머리를 쥐어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크게 화두로 나온 게 인공지능이다. 특히 광주는 인공지능 조성사업 때문에 집적단지로 굉장히 뜨겁다. 이 부분은 제가 4년 전부터 참여했던 부분이 있어서 더욱 관심이 가는데 인공지능에 대해 우리가 사실상 이름은 아는데 그 내용은 잘 모른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시리즈를 유튜브처럼 짧고 쉽게 풀어주는 시리즈로 제작하면 어떨까 한다. 인공지능은 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인공지능 부분이 도입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또 광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방송쪽에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등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현재로는 정책 개발자들만 알고리즘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훨씬 좋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두 번째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요새는 방송 소재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따른 출연진도 중요하고 편집을 어떻게 하는가도 중요한 대목이

다. 자막이 새로운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자막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웃음 포인트를 잡아주기도 하고, 자막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자막이 주제와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편집자의 기획의도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리고 자막에 따라서 녹화 당시의 흐름을 바꾸기도 하고 출연진의 분량을 바꾸기도 한다. 그래서 자막에 대한 전문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자막에 대한 전문교육도 필요할 때다.

- 박미자 위원 : -<오매 전라도>의 팬이기에 관심이 많다. 항상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흥도 잘 안 보이는데, 11월 6일부터 시작한 ‘오매밥상’의 경우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밥상 한 끼 하면서 일반인들과 나누는 대화들이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무척 따뜻하고 소소한 이야기였다. 다행히 노하우가 많은 리포터이신지라 서먹서먹한 일반인들을 잘 리드 하셔서 ‘오매밥상’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갔으면 하는 생각이다. 아무래도 생중계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생중계에 적응하는 모습들이 조금 서툴러 보이지만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시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수능날 수능 맞춤 도시락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처럼 스튜디오에서 직접 시범을 보이고, 맛을 보고 했을 때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는 많은 도움이 됐겠다. 때에 맞게 시의적절한 프로그램이 잘 짜인 것 같아 흐뭇했다. 특히 제가 MBC에 감동적인 게 뭐냐면 MBC 프로그램인 ‘청출어람’ 같은 경우, 우리가 알지 못한 숨겨져 있는 다양한 청년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 올해까지만 한다고 해서 아쉽다. 이렇게 청출어람처럼 청년들에게 용기와 힘이 되고 청년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 우리가 ‘청년정치를 말한다’ 처럼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이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청년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어른들과 주변에 꾸준히 알릴 수 있는 역할이 청출어람이라는 생각을 했다. 청출어람을 보면서 정말 저런 청년 대단하다고 감동먹은 청년들 많이 있었다. 그래서 청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본인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나 캠페인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지속되길 바란다. MBC 캠페인이 무척 많다. 무등산 등 자연적으로 만들어져있는 캠페인들을 보면 MBC만의 역량이 이러한 캠페인으로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 조숙경 위원 : -<문화콘서트 난장>이 나주정미소 난장곡간으로 이름도 잘 지은 것 같다. 11월 26일날 첫 녹화를 한다고 공지가 되어있었다. 사실 <난장>은 광주MBC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지 않나.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지역의 특정한 공간 하고 결합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 같다. 이 사업이 제대로 잘 정착해서 다른 지역의 모범 사례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난장>이 <아시안 탐 밴드>라는 프로그램으로 승격한다고 하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사실 아시아의 문화가 잘 보이지 않는데 그중에 음악과 관련된 것은 광주MBC가 선두를 친다는 생각으로, 대표적인 문화상품으로 발전시켜보면 좋지 않을까 기대한다.
- 이철우 위원 : -저는 <핑크피쉬>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제가 본 후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다고 걱정하고 봤다. 가능하면 다 보려고 했는데 사정상 못 본 것들이 몇 편 있어 유튜브에서도 찾아보고 단편, 단편이 있어서 봤다. 이번에 상을 5번째 받는다고 들었는데 대단한 일을 하셨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아쉬운 점이 있어 얘기를 드리겠다.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다. 일단 저는 처음에 기대를 했던 게 흥어라는 게 사실 우리 지역을 비하하고 폄하하는 말이어서 그것을 완전히 이기기

위해 정치적인 요소랑 다 합쳐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들 것인가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예능하고 다큐하고 중간 정도인 것 같았다. 그리고 내레이션 없이 출연자가 전부 대담의 형태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자막으로 처리해서 연결해주는 독특한 방식이었다. 좋았지만 한 가지 아쉽게 느꼈던 것은 흥어가 음식하고 연관돼서 먹는 것 위주로 해서만 봤다. 흥어가 어떻게 알을 낳아서 커가는지, 우리 바다에서 왜 잡히는지에 대한 이런 아카데미한 요소들이 더 들어있었다면 다큐 쪽이 강해져서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즘 모 방송국에서 방영하는 여러 낚시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지 않나. 최근에 들어서 시청자들이 자연 속으로 빠져들어 가는 것이 캠핑문화와 연관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대학생들과 대화를 해보면 실제로 식물의 이름이라던가 동물의 상세한 생태 삶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완전히 디지털문화 쪽으로 가버려서 환경이나 자연 등 이런 것에 대한 고마움을 잘 모른다. 그래서 이런 아카데미적 요소가 좀 더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중에 예능 비슷하게, 출연진들이 셰프 위주인데 자연스럽게 연기를 잘했다. 중국편을 보면 너무 먹방 위주로 가서 먹는 장면이 계속 나온다. 어떻게 되나 관찰해보니 다양한 음식들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다. 그렇다 보니 출연자들이 계속 먹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많은 음식을 다 먹을 순 없지 않나. 조금 아깝고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아쉬운 점이 있었다. 그런 것을 다큐화 했으면 좋았겠다.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획의도가 이 지역을 대변하는 하나의 상징물로 흥어를 내세워 우리 문화를 소개해서 이 지역에 자부심을 심어야겠다는 그런 기획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먹방 스타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우리 고유한 서민적인 것들이 빠졌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결혼식 때는 흥어를 잡아서 반드시 같이 대접을 했었다. 예를 들어서 전통혼례를 재현해서 이런 잔치를 했었다 하면서 우리 지역 내 사람들이 흥어를 중심으로 어떻게 다정하게 살았는지 옛날이야기도 들려주고 그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다.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카데미적 요소가 좀 더 들어가면 생태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프로그램의 품위라고 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높아질 수 있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프로그램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 모아놓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영상이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시 재가공해서 다른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중의 하나가 흥어 셰프들이 만들었던 레시피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방송국에서 식당을 운영한다든지 이것을 공개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수상 축하드리고 수고 많으셨다.

- 류한호 위원 : -저는 <핑크피쉬>에 대해 세 번째 얘기하는 것 같다. 2019년에 광주 MBC는 <핑크피쉬>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프로그램의 활용이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한다. 수상도 여러 차례 하지 않았다. 최근에 전국MBC-TV계 열사작품경연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2019년 지역프로그램대상도 수상하는 이런 것들은 참 큰일이다. 상당히 많은 투자와 제작자들의 치열한 노력과 높은 수준의 창의력이 결합 되어서 나온 성과가 아닐까 싶다. 그래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으로 인해 지역 시청자들의 욕구도 충족되고 시청자들의 자긍심도 강화될 수 있고 제작진도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것 같다. <핑크피쉬>가 광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된 김에 제가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다



른 매체에 판매를 해서 <핑크피쉬>로 수익을 증대시키면서 관련 문화상품을 만들어 보는 것이다. 가령 광주MBC와 영산포 홍어의 거리가 서로 연대를 해서 가볍게 축제를 추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홍어에 대한 이미지가 한국에서만 문제가 된 것이지 다른 데서는 사실 문제가 없지 않나.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해외 피칭 같은 곳에다가 적극적으로 내보내서 그곳에서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치열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장님께서 직접 가서도 좋을 것 같다. 제작진들이 가서 기를 쓰고 판매를 위한 노력을 하다 보면, 어쩌면 지역방송프로그램의 해외 판매에 상당히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고 위기에 빠진 지역방송의 미래 개척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시사성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하나, 2019년이 <핑크피쉬>의 해였다고 하면 2020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 미리 준비를 잘해서 2020년에 <핑크피쉬> 못지않은 좋은 프로그램을 잘 준비해서 2020년에도 멋지게 해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 구제길 위원 : -위원장님께서 무등산에 대해서 지질, 마라톤, 조망권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우리 광주MBC가 광주를 지켜왔고 사실 시민들, 서민들과 굉장히 친숙하지 않나. 그동안 광주가 방금 말씀드린 무등산 조망권이라든지, 2호선 도시철도라든지 공원일몰제, 광주형 일자리 등 여러 가지를 해왔다. 실제 지금 도시철도도 2호선 시작을 했지만 광주가 앞으로 풀어야 할 것은 군공항 이전이다. 군공항 이전은 국가의 미래고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꼭 실현해야 하기에 국가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다. 후손들에게 우리들이, 광주MBC가 물려주어야 할 사업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간의 갈등과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 군공항이 군공항소음법에 의해 작년에 보상한 것이 8,200억이다. 그런데 지금 일부 다른 시 지역의 인구에 비해 우리는 150만 명인데 도심 한 가운데 있다. 금년에도 많은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이런 내용을 광주MBC가 심층적이고 사실적으로 취재해서 광주나 수원이나 대구나 12개의 많은 사격장을 군공항 소음법으로 해서 사격장소음법까지 한다면 좋겠다. 군공항소음법이란 재판 없이 바로 보상해주는, 국회에서 김동철 의원이 발의해서 통과된 법이다. 앞으로 그것을 보상해줘야 할 돈은 천문학적인 숫자다. 지금까지 국방부가 수수방관 하고 있는데 이걸 문재인 정부 100대 공약 사업이기도 하지만 수수방관하고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했을 때는 아마 거기에 축사도 지을 것이고 집도 가짜로 지을 것이고 주소도 옮길 것이고 보상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 생긴다. 작년에 8,200억을 했다면 광주 군공항은 5조7,480억이 들어간다. 거기에서 과연 난제대로 법안에 대해서 난정도 파악하고 대구나 수원 같은 데에서도 해서 국가 미래를 광주MBC가 광주의 후손들에게 줘야 할 광주역이다. 150만 명에게 훈련 중에 폭탄이라도 한 발 떨어진다든지 등의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건강한 민주주의는 반드시 반대의 의견도 있다고 본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사실적이고 심층적으로 다뤄서 광주MBC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찾아주었으면 좋겠다.
- 최영태 위원장 : -프로그램에 대한 아쉬운 점도 지적을 하셨지만 좋은 제안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보직간부님들 말씀을 듣도록 하겠다.
- 곽판주 편성제작국장 :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다큐멘터리 세계지질공원, 무등산권 마라톤대회가 있었는데 기술적으로 저희가 무등산권지오마라톤대회 바로 앞의 정규 편성을 취소하고 붐업을 위해서 다큐멘터리를 편성을 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

다음에 김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남도증가 보물투어 좋은 말씀 감사하고 이것은 한가름 피디가 만들었음을 말씀드린다. 또 인공지능 관련해서 짧고 쉽게 3분 정도의 시리즈를 만들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저희는 2020 계획으로 보급형 인공지능 토크콘서트 10부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린다. 자막의 중요성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다. 그런데 예능과 교양의 프로그램 장르별 자막의 특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박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매밥상’ 감사하다. 저녁시간 때 모바일이 아닌 지상파 시청자들의 니즈는 무엇일까 고민해서 기획한 코너이다. LTE 생방송이 상당히 부담이 있는데 시청자와의 진한 스킨십을 목표로 만들어서 잘 가고 있다. 향후 이외에도 시청자의 편에 서서 다양한 아이টে를 선보이려고 준비하고 있다. 청출어람 캠페인은 월요일에 종료를 하지만 여태했던 다른 프로그램에서 녹여낼 생각이고 청년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윤동현 학생의 청출어람 캠페인 아이টে를 한가름 피디가 트렌드 하게 잘 만들어냈다. 조숙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난장>에 대해서 프리오픈을 11월 26일 오후 5시에 한다고 앞에서 보고 드렸고, 정식 녹화는 12월 6일부터 하는데 기념식을 오후 3시에 할 예정이다. 그때 출연할 가수로 엔플라잉을 섭외했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다. 보실 분들은 광고 부탁드립니다. 시청자위원님들도 초대를 하겠다. 그리고 <아시아 탐 밴드>는 이쪽 지역의 문화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핑크피쉬>는 이제까지 큰 상만 다섯 개를 수상했다. 프로그램 기획을 할 때 홍어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약간 차별화시켜서 만들어 보자 해서 시청자들이 보기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능적인 감각을 입혀 트렌드 하게 만들어서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춰보자는 기획에서 만들었다. 제작진도 나주편 두 편, 영산포편 두 편, 흑산도편 세 편을 만들었는데 지역 식힘의 문화, 영산도를 둘러싼 세월의 흐름, 홍어잡이 주낙법, 홍어잡이 배, 흑산도 풍경 등 지역의 자산을 현대의 감각으로 담아내려고 노력했다는 보고를 드린다. 그리고 이것이 완료가 아니다. 뒤에 완결이 어떻게 되냐면 향후 12월달, 1월달에 홍어 팝업 레스토랑을 만들어서 직접 개발한 레시피를 가지고 한 번씩 전문가들, 일반 시민들도 맛보게 해서 촬영을 할 예정이다. 맨 마지막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아우르는 홍어 대토론 2부작을 기획을 하고 있어서 아마 설 전까지 전부 완료가 될 것 같다. 그게 10편 플러스 레스토랑 1편, 그리고 토론회까지 해서 12편 정도 되어야 완결이 될 것이다. 홍어 팝업 레스토랑은 서울로 섭외를 해놓았다. 그리고 류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판매 수익증대 노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 만드는 세 편을 영문판으로 만들어서 12월 3일부터 7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아시아TV포럼 마켓이 열리는데 거기에 피디를 보내서 세일즈할 생각이다. 2019년 <핑크피쉬>의 해를 넘어서 2020도 주문하셨는데 2020을 향해서 11월에 간부워크숍을 통해 여러 가지 반찬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상 보고 마치겠다.

- 한신구 보도국장 : -뉴스는 하루에 4~50분 정도 하는데 시청자위원분들 관심이 많아서 상당히 부담스럽다. 먼저 박미자 위원님께서 “<뉴스투데이>의 깊이 있는 전달이 아쉽다.”라고 말씀하셨다. <뉴스투데이> 특성상 아침에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전달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다. 기자들도 수많은 정보 속에서 취사 선택하느라 힘들기도 하다. 하지만 시청자들의 요구나 욕구에 맞는 뉴스를 만들려고 최

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떤 심층적인 뉴스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이슈인투데이 코너라든가 4~5분 정도 할애를 해서 항상 하고 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계기적으로 또다시 어떤 현안이 발생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다. 박미자 위원님 고맙다. 제가 시청자위원회를 2년 가까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꼼꼼하게 모니터 해주신 적이 없다. 인터뷰하는 사람이 두 개가 겹치는데 한번은 전남대 경제학부로 나오고 한번은 학벌없는시민사회를위한모임으로 나왔는데 어떤 것이냐라는 질문을 주셨다. 그분이 전남대 학생 중에서도 벽보를 지키는 모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이다. 또 대외활동으로는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에서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다. 뉴스 간격이 11일 정도 되었다. 그런데 그 11일 동안 계속 뉴스를 보셨다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방송에서 임의적인 인터뷰 하는 사람을 고려하는 건 없고 해당 기자가 가장 적합한 사람을 맞춰서 섭외를 하는 부분이 있고 최대한 최적화된 사람을 찾아보니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 한다. 이요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송화면이 잘못 송출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주말 뉴스를 기존의 방식인 테잎방식에서 파일방식으로 변환하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10월 26일 처음으로 하는 과정에서 한번 잘못 나갔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그런 사고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다. 조숙경, 이요숙 위원님께서 주말 뉴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다. 연계성이 없다든가, 다양성이 부족하다든가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토요일 뉴스 같은 경우엔 6~7분 정도의 뉴스량밖에 안 된다. 그리고 특히 토요일 뉴스 같은 경우 그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동절기에 접어들다 보니까 행사들도 많이 없어서 기획뉴스로 채워지는 과정이 많다. 그런데 당일 16일날 뉴스 같은 경우에는 그날 시민들이 막바지 단풍이었기도 하고 14일이 수능이었고 그 다음 다음 날의 주요 이슈 중 하나가 대학의 십몇 년째 동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대학교들도 어렵고 학부모들도 항상 거기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기도 해서 그 아이টেম을 했다. 그 다음에 입시설명회에 대학들과 학부모들이 관심 있는 상황이었고 뒤에 화제나 이런 게 뭐 하나 있었고 뒤에 교육 아이টেম이 들어간 건데 이것은 국장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그렇게 TMT 오늘의 뉴스는 아니었다고 해서 지금 봤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발생한 것 같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배려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류한호 위원님께서 한빛원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면서 심층적으로 다뤄달라, 관심을 가져달라 하신 내용을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보가 차단된 측면이 있어서 좀 어렵긴 합니다만 원한이라든가 주민들이라든가 항상 밀접한 연관고리를 가지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 그리고 총선 관련해서 의제설정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특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하셨다. 저희가 고민이 있는 게 내년 총선의 가장 큰 관심은 세대교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지난주부터 계속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 정치신인들 특히 예비후보들이 12월 17일날 등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이 정치신인들을 좀 더 많이 알려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지금부터 많이 하고 있다. 그런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1분에서 2분 정도 마이크를 드리는 방법, 아니면 어떤 꼭지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한 달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유권자에게 알리도록 노력하겠다. 의제설정은 당연히 저희가 해야 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무등산이나 군공항 등 의제에 적극 담아서

총선에 나오는 후보들이 공약화하거나, 아니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유도하도록 하겠다. 구제길 위원님께서 위니아 대우전자 생산라인 이전을 말씀하셨다. 저희가 항상 경제쪽이 여러 가지 지역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촉을 거기에 놓고 있다. 2016년 삼성전자 때도 저희가 가장 먼저 보도를 해서 특종상을 받기도 했고 특히 이번에도 삼성만큼 영향은 아니지만 위니아대우도 상당히 협력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용섭 시장이 현장에 직접 달려가서 그런 부분을 챙기기도 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 방금 말씀하셨던 군공항 이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애매한 측면이 있다. 목포MBC와의 관계도 있고 무안군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신청을 해야 되는 사업이다.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그렇다. 기부된 양의 방식을 가지고 이 정도 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이 무안군민들의 요구고 그야말로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것을 쏟아부어 주지 않는 이상 이전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 무안군과 무안주민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상대방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도에서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대응적으로는 다 공감하시는 것처럼 이전에 대한 필요성은 다 인정하고 있다. 그 부분은 최대한 보도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최영태 위원장님, 최선희 위원님께서 최근의 <시사본색> 출연자 말씀을 해주셨다. 저희도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다. 김낙곤 사회자부터 작가들까지 항상 치열하게 고민하는 부분이다. 지금의 특성상 시사탐구, 인더시사 이런 포맷에서 집중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성 부분이 약간 소홀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런 부분의 의견이 좀 더 다양하게 반영되는 인터뷰 코너를 제외하는 등 보완하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다. 아까 말씀하셨던 자유한국당 의원이나 관계자 섭외는 제가 회사 입사한 이래로 25년째 영원한 숙제다. 절대 나오려고 하지 않고 나올만한 분들도 없다. 중앙에서 불러내려고 해도 지역이슈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라며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 그나마 이정현 의원이 있을 때 그분은 그나마 나오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연결고리까지 끊어졌다. 그래도 꾸준히 구애를 하도록 하겠다.

- 안승현 기획심의부장 : -이묘숙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주신 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편을 통해서 일정 부분 디자인, 시각적, 기능적인 면이 일부 개선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개선된 부분이 있으면서도 일정 부분 다시보기라든가 그런 경우에 렉이 걸린다든가 하는 미흡한 부분이 아직까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서버와 네트워크가 관련된 복합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쉽게 해결이 어렵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의 개선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저희들 하고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더불어 홈페이지를 관리했던 업체까지 꾸준히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송일준 사장 : -<핑크피쉬>에 대해 이철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 우리 피디들과 국장이 저한테 신물 나게 들은 얘기다. <핑크피쉬>의 방향은 아까 우리 곽 국장이 설명한 그런 것이었다. 여기에 갑자기 홍어의 생태에 집중한 자연 다큐멘터리를 끼워 넣는 것이 시리즈의 방향이나 성격이 튀는 부분이 있어서 뻘뻘했다. 그런 아쉬운 부분을 저희가 대토론회를 설날 무렵에 방송을 하게 될 것이지만 거기에 전라도와 홍어, 홍어라고 하는 생선이 어떤 생선인가. 홍어가 굉장히 특이하고 재밌는 생선이지 않

나.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고 할 이야기도 많다. 그런 내용을 일단 대토론회 두 시간을 하면서 1부, 2부에 소주제별로 나눠서 재미있게 이 내용을 풀어서 우리가 음식 위주로 전개되었던 이 시리즈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을 이렇게 한번 담아볼까 생각을 하고 있다. 어쨌든 아쉬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팝업 레스토랑을 통해서 우리가 개발한 메뉴들을 일반인들에게 시식을 하게 하고 그 반응을 보고 그렇게 해서 흥어가 소비되는 범주를 확대시켜 주는 역할을 저희가 할 것이고, 또 하나는 흥어의 쿠키를 저희가 마라톤대회 때 선보였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쿠키, 빵, 캐릭터 굿즈 등을 스마트미디어사업단으로 넘겨서 캐릭터화를 통한 상품화를 하는 것도 아마 내년에 후속 작업으로 시도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 전라도에서 자라는 젊은이들이 ‘흥어’ 하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여간 <핑크피쉬>는 저희가 작년, 올해 우리 광주MBC의 성과를 굉장히 드높여 준 그런 작품이다. 저희의 노력을 통해 서울에서도 계속 나가고 나중에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 지금은 유튜브에 풀 텍스트는 공개를 안 하고 세그먼트로 일부 맛보기만 해냈다. 그것을 패키지로 해서 풀 텍스트로 판매도 하고 공급도 하고 그럴 생각이다. 그 다음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보도가 사실 기자들 숫자도 얼마 안 되고 KBS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기자 숫자가 열세다. 보도 뉴스룸이나 여러 가지 장비나 시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인원도 마찬가지로 민방보다도 훨씬 더 적고 열세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광주MBC의 <뉴스데스크>의 시청률이 이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다. 제가 와서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 3, 4% 정도 나오던 시청률이 지금은 7, 8%가 예사로 나오고 있다. MBC를 떠났던 시청자들이 특히 뉴스와 시사로 거의 많이 돌아오고 있다.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MBC 뉴스에 대한 시청자들의 신뢰가 높아졌다. 특히 광주, 전남지역, 지역성도 조금 작용하는 것 같다. 저희 <핑크피쉬>나 지오마라톤대회 등 여러 가지 지역민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상당 부분 보상을 받고 있고 또 그것이 이런 수치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다만 광고비가 늘지 않아서 경영상으로 어려움에 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좋아지지 않을까. 내년은 5.18 40주년이다. 저희가 <핑크피쉬> 같은 것보다는 5.18에 집중하는 그런 기획을 지금부터 많이 준비하고 있다.

끝.